

광복 70주년에 돌아보는

광복로만들기 10년

우신구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2014 KCH



© 2014 KCH

상
하
과거 국제시장 모습
명절을 앞두고 불비는 과거 자갈치시장



용두산공원과 자갈치시장





광복로사업 준공 후 모습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일본인들이 오랜 기간,
가장 많이 거주하며
번창한 지역이었기에
조국의 광복을 기리는 의미에서
‘광복동’이라 이름 지었다.

상 사업 전 가로 모습
하 사업 후 가로 모습



2009년 제1회 부산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상 사업 이후 S자모양의 차도와 넓어진 보도
하 토탈 디자인으로 바뀐 광복로의 모습

대부분 행정이 주도하는
가로개선사업과 달리

광복로 사업의 경우
기획단계부터
주민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업의 주체가 되었다.

주민단체인
‘광복로문화포럼’의 결성은
이 사업의 가장 큰
결실이다.



사업 전·후 건물입면과 간판 모습

광복로의 과거

광복로 일대는 국제적 항만도시 부산의 뿌리였다. 조선 숙종 4년(1678년), 당시 일본의 집요한 요청으로 지금의 용두산 주변 약 11만 평 자리에 초량왜관이 설치되었다. 왜관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무역 거점이자 외교의 중심지였다. 오늘날의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일종의 한·일 간 외교·무역 특구였던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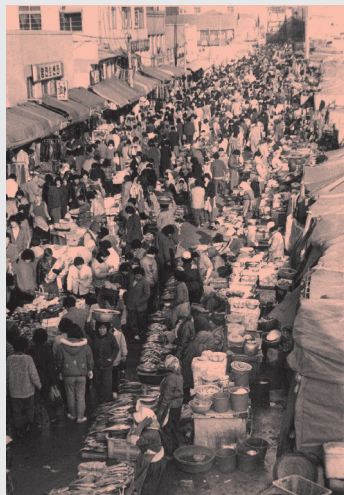
1876년 강화도조약이 체결됨으로써 부산이 개항되면서, 그 해 12월 부산항일본인거류지계조약(釜山港日本人居留地界條約)이 조인되어 기존의 초량왜관이 그대로 일본인 전관거류지로 개방되었다. 일본의 침략이 강화되면서 전관거류지는 근대도시 부산의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각종 공공기관, 업무 및 상업시설, 항만, 철도, 공장 등 산업시설들이 모두 이곳을 중심으로 들어섰다. 일제강점기에 상업중심가였던 장수통(長手通, 지금의 광복로)은 요리점, 극장, 백화점 등과 같은 새롭고 신기한 근대문화의 전시장이었다.

1945년 광복 이후 일본식 지명들은 다시 한국식 이름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이 지역은 일본인들이 오랜 기간 가장 많이 거주하며 번창한 지역이었기에, 조국의 광복을 기리는 의미에서 ‘광복동’이라 이름 지었다. 광복(光復), 즉 ‘빛을 회복한다’라는 은유적 표현에는 ‘독립’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인접하는 남포동과 함께 광복동은 부산 시민들에게 ‘ 시내(市内)’라는 말과 동의어였다. 이곳에서 명절이면 새 옷을 사고, 신학기에는 새 책을 골랐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영어학원을 다녔으며, 특별한 날에는 가족들과 외식을 즐겼다. 고단하던 산업화 시대, 시민들이 문화를 누릴 수 있었던 곳도 바로 광복로 일대였다. 영화를 보면서 데이트를 하였고, 미술전시회를 보면서 차를 마셨으며, 고급 음향기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수 있었던 곳도 바로 광복로였다.

그뿐만 아니라 광복로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정치적인 장소이기도 하였다. 식민지를 벗어나 광복의 감격을 함께 누렸고, 군부독재에 온몸으로 저항하기도 하였다.

© 김형기



상 과거 국제시장 모습
하 명절을 앞두고 볼비는 과거 자갈치시장



©부산 중구청



©유인구



상 광복로 초기 계획안
중 민·관·학 대표가 시공상의 문제를 함께
협의하는 모습
하 가로등 공장을 방문한 주민 대표

‘ 시내’에 나가면 광복로와 함께 주변의 자갈치시장, 영도다리, 국제시장, 용두산공원 등 전국적으로 지명도를 가진 장소들도 함께 둘러보게 된다. 그러므로 부산 시민들에게 광복로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는 넓은 심상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해운대와 동래 방면으로 신시가지가 개발되었고, 구도심의 좁은 부지에 자리 잡고 있던 시청·법원·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방송국도 하나둘 이전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부산의 탈산업화가 진행하면서 원도심 주변에 있던 산업체들도 문을 닫거나 역외로 이전하였다. 그뿐 아니라 백화점과 대형 할인마트 등이 들어서면서 소비문화가 변화하여 재래시장과 상점가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중구·영도구·동구·서구 등 부산의 원도심은 급격히 활력을 잃기 시작하였고, 광복로도 긴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10년 전에 시작한 변화

‘광복로 일원 시범가로 사업’(이하 광복로사업)은 원도심과 광복로가 처한 이런 어려움에서 비롯되었다. 2005년부터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문화관광부·부산광역시청·중구청이 공동으로 87억 원의 사업비를 출연하여, 광복로와 일대 약 1km 구간의 거리를 개선하는 사업이었다. 광복로가 가진 지역성과 역사성을 살리면서 문화적인 가로로 회복하여 쇠퇴한 원도심을 재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당시 전국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간판시범거리와 비슷한 동기에서 출발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가졌다.

첫째, 민·관·학의 거버넌스로 추진한 사업이었다. 공공에서 추진하는 가로개선사업은 대부분 행정이 주도한다. 미리 결정된 사업기간과 예산 내에 순조롭게 사업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광복로사업의 경우에는 주민, 행정, 그리고 전문가가 참여한 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사업추진과 관련된 중요사항들을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민·관·학의 합의에 의한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구조 때문에 원래 예정보다 사업이 지체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함께 협의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하고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서 주민들은 사업의 주체로 조금씩 변화하였다. 한창 사업이 진행되던 2007년 1월 추진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를 중심으로 ‘광복로문화포럼’이라는 주민단체가 결성된 것은 이 사업이 거둔 가장 큰 결실이었다.

둘째, 차량이 지배하는 도로를 보행자 우선의 느린 거리(slow street)로 바꾸었다. 원래 광복로는 일방통행의 2개 차도가 길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다. 2개 차선 중 한 차선은 거의 주차장처럼 사용되었고, 보도는 좁았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불법주차 차량이 침입하기 일췌였다. 사람들이 다시 찾는 광복로가 되기 위해서는 보행자를 위한 거리로 거듭나야 했다. 이에 따라 보행공간 확보와 차량 감속(traffic calming)을 위해 차도를 ‘S’자 모양의 1차선으로 줄이고, 차도와 보도 사이에 단차를 없애고 화강석 포장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보행자들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 없이 가로 전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느끼도록 하였다. ‘S’자로 휘어지면서 중간 중간 넓어지는 보행공간에는 조경·휴식·수경시설을 도입하여 어메니티(amenity) 공간을 확보하였다. 특히 조경시설과 수경시설은 넓은 통석으로 마무리하여 방문자들이 나무그늘에서, 물소리를 들으며 앉아 쉴 수 있도록 하였다. 광복로의 보행자들은 횡단보도를 신경 쓰지 않고 어디서든 1차선 차도를 건너다니면서 윈도쇼핑을 즐긴다. 광복로에 진입한 차량들이 오히려 조심하면서 지난다.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걸다가 피곤하면 조경 식재대의 넓은 경계석에 앉아 쉬었다간다.

셋째,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함께 개선한 토털 디자인이었다. 방문객들의 인식 속에서 거리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가로공간 그 자체만이 아니라 가로를 둘러싸고 있는 건물들의 입면이다. 흔히 가로입면(street facade)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문제는 가로입면을 구성하는 건물의 입면이나 광고물 등은 사적인 영역이어서 공공이 개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가로개선 사업이 가로공간과 공공시설물 개선사업만 하거나 간판정비사



사업 전·후 가로 모습



사업 전·후 건물입면과
간판 모습

업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광복로사업에서는 가로공간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간판을 비롯하여 일부 노후 건물의 입면까지 함께 정비함으로써 가로 전체의 어메니티와 경관을 향상시키려고 하였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업거리와 마찬가지로 광복로도 무질서한 간판들이 거리 경관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었다. 사업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대형 간판을 철거하는 대신 작은 간판으로 바꾸고, 간판의 수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시간에 걸친 설명과 설득의 성과였다. 추진위원회에 참여한 ‘주민 대표’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다. 광복로사업을 계기로 광복로 일대는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모든 간판은 민·관·학이 참여하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되고 있다. 이후 크기가 작아지고 개수가 줄어든 간판이 거리 경관을 향상시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세로 길이 4m까지 허용되던 돌출간판의 크기도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 2m로 더 축소하였다.

넷째, 끝이 없는 가로개선사업이다.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공공사업으로서 광복로 일원 시범가로 사업은 2008년 2월 준공으로 공식 종료되었다. 길과 함께 길에 면한 건물들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면서 ‘지나가던 길’이었던 광복로가 ‘찾아가는 길’이 되었다.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의 숫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오랫동안 빈 건물로 방치되어 있던 구(舊)미화당백화점 건물이 리모델링되어 대형 신발매장으로 다시 개장하였다. 이런 변화보다 훨씬 큰 변화는 그 뒤에 찾아왔다. 2008년 12월 광복로 문화포럼은 ‘제1회 빛의축제’를 개최하였고, 꽤 많은 시민들이 루미나리에(luminarie)를 즐기기 위해 광복로를 찾았다. 여기서 용기를 얻은 광복로문화포럼은 부산의 기독교계에서 소규모로 진행하던 크리스마스트리 축제를 광복로에 유치하여 ‘제1회 부산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를 2009년 11월에 열었다. 겨울축제가 빈약한 부산에서 광복로의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2014년 제6회에 이르기까지 축제기간, 문화행사, 방문객, 개최거리의 길이 등 모든 지표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광복로의 성공을 벤치마킹하여 목포, 동두천, 김해 등지에서 2013년부터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광복로의 미래

2008년 광복로시범가로사업이 준공된 후 7년 여가 지나면서 식재대에 심은 나무들은 가지와 잎이 무성해져 거리에 푸름과 그늘을 제공하고 있다. 거리를 포장한 화강석은 적당히 때가 묻어 광복로에 시간감각을 더하고 있다. 평일에도 많은 시민들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광복로를 찾는다. 빈 점포가 드문드문 있던 10년 전의 광복로와 달리 의류점, 카페, 화장품가게 등이 성업 중이다.

긍정적인 모습 뒤에는 부정적인 변화도 없지 않다. 광복로를 찾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임차료도 급등하였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생겼다가 금방 없어지는 가게들이 늘고 있다. 무엇보다 수십 년 동안 광복로를 지켜 온 오래된 가게들이 사라지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이 늘면서 광복로는 특성 없는 거리 중 하나로 변하고 있다.

최근 광복로는 새로운 실험을 시도하고 있다. 크리스마스가 광복로를 상징하는 중요한 행사가 되면서 광복로 일대를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자는 움직임이다. 2014년 7월에는 제1회 대한민국 크리스마스 산업포럼이 광복로에서 열려 크리스마스 축제와 산업에 관심 있는 산업체·기관·지자체를 위한 정보, 마케팅, 그리고 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물론 제1회 포럼은 성대하지 않았지만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가 여타 지자체로 확산되었듯이 크리스마스 관련 산업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며, 그 공간적 중심이 광복로 일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2005년 시작된 광복로의 변화는 만 10년을 넘어 11년째에 접어들었다. 지난 10년 동안 광복로사업에 참여해 온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10년은 또 어떤 모습일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상상해본다. 이는 광복로의 밝은 미래를 꿈꾸는 이에게 늘 가슴 설레는 일이며, 또 조금은 걱정스럽기도 하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광복로를 지켜보아야 한다. 광복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부산의 소중한 공간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유진구



©마이스부산(부산시·관광진흥청)



상 2008년 제1회 빛의축제
하 2014년 제1회 대한민국 크리스마스 산업포럼